

# 대기업 30% “글로벌 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받아”

## 기업 35%, RE100 애로사항으로 ‘비용 부담’ 꼽아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소비 5대 기업 사용량보다 적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A사는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업체로부터 배터리 제조과정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납품 수주의 기본 조건으로 요구받고 있다.

또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분석을 통해 일정 탄소배출량 이하 수준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맞추려면 A사는 물론 협력사들까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A사는 우선 재생에너지 조달이 용이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위주로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 제품의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로드맵을 협력사와 함께 논의 중이다.

글로벌 수요기업에 거처 위 등생용품 소재를 납품하는 B사는 최근 납품 과정에서 B사 제품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경우 탄소감축이 얼마나 되는지 제출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아직은 재생에너지 사용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조 분야 대기업의 10곳 중 3곳 정도가 글로벌 업체로부터 제품 생산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제조기업의 RE100 참여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 28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에 참여하는 애플,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수요기업은 납품하는 공급망 협력사에게 제품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4.7%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대기업은

28.8%, 중견기업은 9.5%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은 시점은 ‘2030년 이후’가 38.1%로 가장 많았으며 ‘2025년까지’ 33.3%, ‘2026~2030년’ 9.5% 등으로 집계됐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민간의 자발적 캠페인이다.

최근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는 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애플, 구글, BMW 등 379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K 7개사,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22개사가 이미 RE100에 가입했으며 삼성전자는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RE100 캠페인 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내 협력사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면서 관련 국내 기업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지난해 글로벌 RE100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중 77개사는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실제 해외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청받더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기 꺼려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RE100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출 경쟁력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기업 35%, RE100 애로사항 ‘비용 부담’

### 쏟아

국내 기업들은 RE100 참여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비용 부담(35.0%)을 꼽았다. 이어 관련 제도 및 인프라 미흡(23.7%), 정보 부족(23.1%), 전문인력 부족(17.4%) 순으로 응답했다.

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RE100을 이행하려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짓거나, 녹색프리미엄제도를 통해 웃돈을 주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세 가지 조달 방식에 드는 비용이 각각 유럽의 1.5~2배 수준”이라며 “특히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등은 수십년 동안 일회성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중소·중견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면 주민 민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문제가 발생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발전사업자와 같이 주민연계형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정부-기업-주민 협력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유했다.

### ◆재생에너지 발전량 부족…전력소비 5대 기업 사용량>재생에너지 발전량

대한상회의는 근본적인 문제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부족을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 전력다소비 기업 상위 30개사 대상 한전의 전력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국내 전력소비 상위 5개 기업은 47.7테라와트시(TWh), 30개 기업은 102.9TWh의 전력을 소비했는데 지난해 국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1TWh에 불과했다.

한국에너지공단도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조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43%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약 30%)에



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의 국내 RE100 가입 기업의 전력 소비량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보다 적지만 향후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력 다소비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에 대비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기업 4곳 중 1곳, 정책과제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요구

기업들이 RE100 참여를 위해 희망하는 정책과제로는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25.1%)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재생에너지 구매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23.2%), ‘재생에너지 전력인프라 확대’(19.8%), ‘정보 및 재생에너지 사업자 매칭 컨설팅 지원’(16.5%), ‘부대비용 인하’(14.9%)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한상의는 ▲PPA 주민참여형 사업에 인센티브 제공 ▲녹색요금제 구매시 부가비용 면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대형사업에 민간기업 참여 확대 ▲PPA 부가비용 최소화 등 6개 정책 지원과제를 제안했다.

한편 국내 재생에너지 여건을 고려해

RE100 대신 CF100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62.2%는 ‘국내 현실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7.8%는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CF100(24/7 Carbon-Free Energy)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풍력, 태양력, 원자력발전 등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실시간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캠페인이다. RE100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데 비해 CF100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자력발전, 연료전지 등도 포함된다.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70여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센터장은 “해외 수요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내기업의 중소·중견기업 협력사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협력사가 1만개 이상으로 파악되는 만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호기자

## 배추·무 등 비축 농산물 공급 확대…aT

### aT, 추석 물가 대응 농산물 수급 대책 점검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추석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농산물 수급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춘진 aT 사장을 포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롯데마트, 대이청과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aT는 폭염과 폭우 등의 영향으로 배추와 무

의 생산량이 각각 전년보다 8.3%, 17.1%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하자 수매물량 및 출하조절시설 물량 50~200t(일 기준)을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에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마늘과 양파는 평시 대비 2배 수준으로 물량을 늘려 시장에 내놓는다. 두부, 장류 등 두류는 실수요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물량을 확대하고 콩나물공은 추석 전에 3000t을 공급한다. 올해 가격이 상승한 감자는 수매 및 저율관세 할당(TRQ) 수입 물량을 확보해 일일 100t 수준으로 시장에 지속적으로 방출할 방침이다.

aT는 하반기 대과와 양파의 할당관세 쿠키를 식품 제조업체 등 실수요자 배정을 통해 해당 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추석 전 성수품 알뜰 구매정보 제공과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최이슬기자

## 농협하나로마트, 추석 선물세트 특별할인 기획전 40% 할인

###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2200여 개 매장에서 진행



농협 하나로마트는 다음달 9일까지 15일간 전국 2200여 개 매장에서 추석 선물세트 특별할인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전은 5만원 이하 실속 선물 세트부터 프리미엄 선물 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된다.

실속 선물 세트는 ▲캔류·가공생선 선물 세트 ▲사과·배·감귤 세트 ▲양곡 선물 세트 ▲생활용품 세트 등을 선보인다.

명품 선물 세트는 ▲국산 망고·사인머스켓을 혼합한 프라네 명작 혼합 프리미엄 세트 ▲한우스테이크와 와인 세트 ▲영광법성포술비

세트 ▲기름·재래식 장류 등을 내놓는다.

기획전 기간 중 행사 카드(NH·NHBC·KB·삼성·신한·롯데·하나·우리·비씨·전북)로 결제 시 최대 40% 추가할인을 제공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농촌사랑상품권도 최대 100만원 증정한다.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경우 덤 상품을 증정한다.

또한 ‘살맛나는 가격’ 특별할인행사를 동시에 열어 통해 제수용품, 생필품 등 200여 품목을 최대 57% 할인 판매한다.

농협몰에서는 다음달 6일까지 산지 택배상품을 NH농협마트로 결제하면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20%를 할인해 준다. 다음달 30일까지 e-하나로마트 상품 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쿠폰도 증정한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하나로마트가 준비한 우리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통해 소중한 사람에게 정겨운 마음을 전하며 풍성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축수산물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품질 높은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며 소비자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39초 만에 완판된 추석선물세트?

### 박재범 ‘원소주’ 인기

올해 최고 인기 주류로 떠오른 ‘박재범 소주’가 추석선물세트로도 인기가 있다.

26일 편의점 GS25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원소주 기획세트’를 처음 판매했는데 판매 시작 39초 만에 일일 한정 물량 300세트를 모두 팔아치웠다. 0.13초에 1세트씩 팔려나간 셈이다.

GS25가 선보인 ‘원소주 기획세트’는 추석 선물로 출시한 한정판 상품이다. 원소주 오리지날 2병과 전용 온더락 잔 2개로 구성됐다.

GS25가 단독으로 출시했고, GS리테일 스마트 오더 서비스 ‘와인25플러스’에서 주문한 후 가까운 GS25에서 수령할 수 있다.

총 2100세트 제작된 ‘원소주 기획세트’는 ‘와인25 플러스’를 통해 31일까지 판매된다. 매일 오전 10시 첫 주문이 시작되고 한정 물량 300

세트 소진 시 판매는 자동 종료된다. 구매는 1인 1세트만 구매할 수 있다.

‘원소주’는 가수 박재범이 설립한 주류제조 전문기업 원소퍼리츠의 증류식 소주다. 현재 ‘원소주’(오리지날)와 ‘원소주스피릿’을 판매하고 있다.

GS25는 올해 팝업스토어로 원소주를 처음 선보였는데 오픈런(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구매하는 행태)을 일으키며 상반기 최고 히트 아이템으로 꼽혔다.

지난달부터 GS25 매장에서 ‘원소주 스피릿’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출시 일주일 만에 초도 준비 물량을 모두 팔아치웠고 부동의 주류 매출 1·2위였던 카스와 참이슬후레쉬를 넘어 전체 주류 상품 매출 1위에 올랐다.

현재 누적 판매량은 80만 병이고, 매출액은 100억 원에 육박한다.

뉴스스

## “전기차 충전에 걸리는 시간 아이폰보다 빨라진다” WSJ

### 10분만에 전기차 배터리 90%까지 충전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5년 뒤면 아이폰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에릭 듀팩 연구팀이 단 10분만에 전기차 배터리를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나온 기술로는 전기차를 80% 충전하는 데 20분에서 최대 한 시간이 소요된다. 점을 고려할 때 한층 진일보 한 것이다.

테슬라의 자체 고속 충전기 ‘슈퍼차저(Supercharger)’는 15분 충전으로 320km 이상

을 달릴 수 있지만 미국의 다른 전기차들은 그렇지 않다.

보고서는 시장 상용화에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충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를 이끈 듀팩 과학자는 “(전기차 충전) 목표는 휘발유를 넣을 때 걸리는 시간에 매우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듀팩 연구팀은 급속 충전이 배터리의 수명과 성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른 속도로 충전하면서도 배터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듀팩과 그의 팀은 충전을 빨리 할 때 배터리가 어떻게 노화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을 활용했다.

그들의 알고리즘은 배터리가 얼마나 잘 충전되고 있는지, 노후화 또는 성능 여부를 나타내는 2만~3만개의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설계됐다.

연구팀은 분당 10~15 마일을 능가하는 20마일까지 충전이 가능한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듀팩은 “우리는 그 목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